

적십자의 청렴지수 국민의 신뢰지수



# 대한적십자사/인재개발원

Saving Lives,  
적십자는 희망입니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적십자사는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언론보도, SNS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인, 관계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66. 8. 16. 발효한 1949년 제네바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흰색 바탕에 희랍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4. '적십자 표장'을 상당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되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2023. 3. 27.)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공익적 목적일지라도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전시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각 회원사가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불임 안내자료의 대안 표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현행 법률

1)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표장의 사용 제한, 그 예외) 백지에 적십자의 표장 및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라는 말은 평시이건 전시이건을 불문하고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는 위생부대, 위생시설, 요원 및 재료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 금지) 적십자,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언론 보도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22072?sid=100>

붙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 1부. 끝.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수신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직원 여혜진

팀장 목정하

소장

전결 23/05/09

김관우

시행 인도법연구소-141 (2023.05.09.)

접수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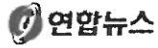
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인재개발원 /

전화 033-811-0282

/ 전송

/ hyejjin97@redcross.or.kr / 부분공개(2)

📎 (230508)적십자표장보호캠페인(인도법연구소).pdf (791.61K)



# '적십자 상징' 무단사용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 7년

입력 2023.05.04. 오후 2:50 수정 2023.05.04. 오후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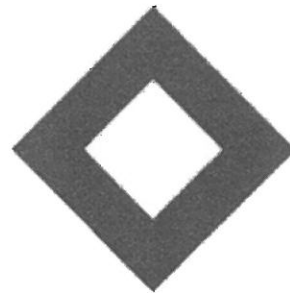
## | 한적, 적십자 표장 특허청에 상표 출원



적십자  
Red Cross



적신월  
Red Crescent



적수정  
Red Crystal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빨간색 십자 형태의 적십자 상징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나섰다.

한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이나 한적 상징 이미지(CI)를 사용하면 상표 침해죄가 적용되며,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한적은 설명했다.

한적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내년 9월까지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이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도안의 반전 디자인이 채택됐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모두 쓰지 않는 국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한다.

현행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도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적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은 이미 불법이지만 제재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의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단 사용에 처벌을 강화하고자 상표 등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적은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적은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와 함께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tree@yna.co.kr

하채림(tr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22072>